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8월 16일(금)

..(윤력 7월16일)..

Пятница

16 августа 2019г.

№ 32(11684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 청소년 역사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참배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배순신 기자 촬영)

단신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광복절 74주년 기념 행사 장소 변경

약천후가 예상돼 광복절 기념 행사 장소를 변경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고 행사조직위원회가 전했다.

2019년 8월 17일 오전 11시 한국 가수 및 사할린 예술단들의 공연, 8월 18일 11시는 씨름대회 열릴 예정이다. 한국 씨름 선수들의 시범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 수산업청 새 청장 임명

8월 9일 사할린주 수산업청 청장 권한 대행으로 이완 라드첸코(1984년생)가 부임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전에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부시장을 역임, 법학을 전공한 이완 라드첸코는 연방 자연관리국, 주 수산업청, 주정부 내부 정책과 등에서 근무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소식

지난 4일(토) 오후 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홍지 주 노인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신임 노인회장으로 주 노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김종길 씨가 선출되었다. 회의에서 김홍지 전 회장을 운영위 고문으로 추천하여 단체 정관에 따라 다음 주한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이 결정을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기업 보호사할린협회(회장 천영곤), 사할린주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가 사할린주한인협회의 단체 위원으로 가입하게 해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 단체들을 다음 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가입 추천을 하기로 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4분기 사업 보고를 심의하여 승인했고 사할린한인 지원 특별법안에 관한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6명 사할린 방문

"사할린 동포 교육을 비롯한 여러 지원 올려달라" 요청

지난 11일(일) 저녁에 한국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 김한표, 서영교, 광상도, 박용진, 전희경 위원들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교육위 대표단의 주요 방문 목적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실태 파악이다. 이를 위해 우선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2번째로 사할린을 찾았다.

12일 아침에 국회의원들은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위치한 사할린 동포 희생 위령조각비를 찾아 참배했다. 다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개막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해주었다.

사할린에서 한국어 및 한민족 문화 교육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이날 이와 관련하여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와 사할린한국교육원의 업무보고를 위주로 하는 회의를 갖고 교육원과 한인문화센터를 시찰했다. 오후에는비코브 옛 탄광을 방문하여 탄광 징용자들의 삶을 되짚어보았다.

이찬열 위원장은 "오늘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한인 4세대들이 역사 탐험발대식을 하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4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왔는지 그것을 몸소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린 것은 한글도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이 알아서 한국과 러시아에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자라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오후에 탄광촌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이 이곳까지 징용으로 끌려오셔서 머나먼 땅에서 탄광 광부의 생활을 하셨던 상황을 목격하고 정말 일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지금이라도 빨리 사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며 방문 소감을 말했다.

(3면에 계속)

지방의회 의원 후보 약 200명 출마

오는 9월 8일 일일 선거일에 주지사 선거 외에 네벨스크와 노글리키 구역 의회 의원 선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의원 선거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와 홀스크에서 구역 의회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노글리키와 네벨스크 경우에는 이곳 선거위원회들이 출마를 원하는 후보들 약 200명을 등록시켰다. 등록 절차를 3명이 밟지 못했는데 이들은 후보 명단에서 등록절차 전에 탈락했다. 선거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후보들은 자진 사퇴를 했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의 선거위원회도 후보 등록을 거절하지 않았다. 홀스크에서는 한 후보가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됐다고 전해 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170명이 출마 의향

을 밝혔는데 8월 12일 현재 129명이 시의회 후보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

후보자 37명은 서류작성 위반으로 거절되었다. 이들 중에는 무소속으로 자진 출마, 공산당 대표, <로지나>당 대표 4명, <노동의 연맹>당 대표 3명이다. 나머지 후보는 서로 다른 이유로 공식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공식 등록이 거부된 후보 17명은 이와 관련해 소송 중이다. 따라서 공식 의원 후보 명단도 변경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두마 의원 선거 운동은 많은 관심사가 될 거라고 했다. 정치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정치에서 첫 걸음을 딛는 활동가들도 많다.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장을 선거하게 된다.

(본사기자)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8월 15일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의 우리말 방송이 15주년을 맞이했다.

사할린 한인들이 민족 언론사 - TV방송과 한민족지를 갖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러시아 내에서 유일한 한국어 언론매체다.

우리말 방송의 간판은 김춘자 국장과 이복순 기자 아나운서다.

한민족 TV방송 아이디어는 1990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서울-대구 시민들이 영상으로 만나는 이산가족의 TV 브리즈(생계방송)이 있는 후에 설립되었다. 그 방송에 기자로, 통역원으로 참가한 김춘자 국장은 이 꿈을 이루기까지 거의 15년이 걸렸다. 10년 이상은 고가 기자재 후원자를 찾는데 걸렸고, 한국어 방송 허락을 받는 데는 2년 반이 걸렸다. 방송 허락을 받는 데에는 <사할린>공사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기자재 구입과 준비과정은 거의 김춘자 국장의 몫이었다. 국장의 추진력은 대단하다.

이르쿠츠크의국어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김춘자 씨는 교사로서 활동하다가 1982년에 <레닌의 길>신문사에 취직해 교정하는 일, 기사 쓰는 법 등등 익히고 거의 4년간 근무했다. 1986년부터는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 조선어 방송국의 기자로 열심히 뛰었다. 취재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다고 한다. 90년대 중반에 재정난으로 라디오 방송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김춘자 기자의 노력으로 라디오 방송을 다시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말의 방송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방송이었다.

김 국장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하나를 전했다. 2004년 8월 14일 새벽, 우리말 TV방송국 첫 방송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2시간 방송 프로그램 편집을 거의 새벽 4시 마쳤다. 김춘자 국장은 편집 엔지니어에게 최종본 방송과일을 저장하라고 했다. "한 2-3시간이면 다시 출근할텐데 저장할 필요가 있겠나?"란 답을 받았다. 4-5시간 후에 출근했더니 저장되지 않은 파일이 완전히 날아갔다. 그때의 그 심정... 말로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대박 사건이었다. 공사 지도부도 그렇게, 아직 티비방송 제작의 거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인데다 첫 방송 예고는 이미 많은 언론매체에서 널리 알려진 상태인지라 김춘자 국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구조자는 <사할린>공사에 유능한 프 로듀서 엘레나 였다. 그는 있는 파일을 다

우리말방송은 사할린동포들의 자부심 방송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시 제작했다. 사실 전문가에게도 시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제작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초를 다루어야 하고, 음향, 조명 등등 고려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 게다가 러시아어로 자막처리를 해야 했다.

"첫 방송은 2시간이었습니다. 20분은 왜 한국어 티비방송이 필요한가, 중요성과 필수성에 대한 이복순과 최 로만 아나운서들의 이야기, 주지사·주주마 의 장·한국 콘테츠를 도우신 KBS방송국 본 부장·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님·주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 사할린동 포들을 대표하는 회장·<사할린>텔레라 디오공사 사장 등등의 축사와 격려, 그 리고 사할린에서 진행된 노래자랑 프로 그램 - 이것들을 모두 날렸다 말입니다"라고 하는 김춘자 국장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시 암담했던 감정을 떠올렸다.

다행히도 고급 전문가 덕분에 이 위기를 넘겼다. 방송은 프라이타임(시청율이 가장 많고 방송하기 가장 좋은 시간, 저녁 7시 20분에 나갔다. 반응이 좋았다.

그 당시 방송을 전 직원 7명, 타임 아르바이트로 7명 - 다수의 젊은이들이 재미있게 일했었다고 한다. 직접 드라마를 번역하여 자막처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만큼 자부심도 크게 가졌다.

순수한 우리말을 전하고, 러시아어 자막도 있으니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나, 방송. 정말 마음이 뿌듯했다고 한다. 게다가 1956년부터 하는 조선어방송도 계속 이어왔다. 동시에 라디오와 티비를 지켜냈다.

재정난으로 인해 장기간 존재했던 우리 라디오는 2009년에 중단되었다. 티비방송도 큰 어려움에 빠졌다. 필자의 생각이 김춘자 국장님의 열면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 방송도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 본다.

다만 지원문제도 방송시간이 줄어들었다. 현재 우리말방송은 월, 금 저녁 7시10분에 자체 방송을 10분씩 하고, 또 월, 화는 재방을 한다. 그동안 제작진의 기술이 많이 늘어나고 언론인으로도 많이 성장했다. 한편 방송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자, 제작진의 수도 많이 감소되었다.

현재 언론인으로는 김춘자 국장외에는 이복순 기자겸 아나운서가 활동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삼육대학 한국어 과를 졸업한 이복순 기자는 동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1999년에 조선어 라디오방송국에 기자로 취직했다. 대학 시절에 방송국에서 견습한 적이 있어서 방송일이 낯설지 않았다. 한국어 실력도 꽤 좋았다. 2004년부터는 티비방송에서 기자로만 아니라 아나운서로 출연한다. 정말 우리말방송국의 얼굴이다. 동포 중

에서만 아니라, 남사할린지역에서 이 여 기자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올가(이복순 기자의 러어명)는 [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 친척들이 방송을 잘 보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 머리스타일, 패션까지 살펴해요]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사실 금년 언론인으로서는 활동 20주년을 맞이한 그녀는 전문가로서 진짜 많이 성장했다. 같은 언론인으로 내려온 결론이다. 그가 취재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다. 특히 이복순 기자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 김춘자 국장과 둘이만 기자로 활동해야 하니 일이 만만치 않다. 누군가 한 명 빠지면 안 되는 상태다.

김춘자 국장은 "티비방송은 집단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재삼 말한다. 현재 기자로서 두 사람이 활동하지만 카메라를 하는 알렉산드르 돈초브, 비디오몬타지를 하는 알렌찌나 자부소와를 꼭 챙긴다. 같은 팀이니까 그렇다며 방송은 팀워크(협동)이라고 강조한다.

그 동안 우리말방송 제작진은 한국과 사할린에서 수많은 상을 따냈다. 김춘자 국장과 방송국 공로를 소개하는데에만 신문 반 페이지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1세 어르신도 소개하고, 사할린한인 사도 방영하고, 한식 레시피도 방송하고, 무엇보다 재능있는 동포청소년들을 많이 촬영하고,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의 얼과 문화를 보급하는 데 큰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우리말방송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말방송은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추억.

우리말방송은 미래에 향한 시선.

우리말방송은 세계 동포와의 인연관계.

우리말방송은 이루어진 꿈이다.

우리말방송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동기."

웁은 말씀인 것 같지 않은가?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주에 연초부터 퇴직을 앞둔 주민 278 명에게 재교육

<사회적 통계> 국가 기획의 <노년 세대>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주는 은퇴를 앞둔 연령의 주민들에게 지역 고용센터의 목적에 따라 직업교육과 보충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내 퇴직을 앞둔 사할린 주민들은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다. 연방 프로젝트 <노년 세대> 참가 대상자는 퇴직을 앞둔 기관의 근로자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고용주의 기획에 따라 일자리를 찾는 연금수급 전 연령의 무직자들을 위해 주 예산과 연방 예산에서 은퇴자 교육에 드는 비용을 장학금으로 제공한다. 말하자면 재교육은 무료이며 장학금도 지급되는 것이다. 장학금은 지역 비율로 증가된 월 최저임금 정도로 지급한다.

재교육은 원격 교육기술을 적용한 정규 교육과 통신 교육으로 지역 고용노동시장의 요구와 전공에 따라 실시된다. 7개월간 <노년 세대> 기획 실시로 사할린 주민 278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중 130명이 졸업했다. 이들 중에는 회계업, 영업, 건축, 무역, 보건, 공공주택사업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올해 퇴직을

앞둔 주민 총 400명 이상이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가 지정한 바로는 사할린주가 직업교육과 보충직업교육 조직에 있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고 한다. 사할린 지역은 설정된 연간 지표의 103%를 달성했다.

진행되는 활동은 분명, 퇴직 전 연령의 국민들이 획득한 전문적인 훈련을 가지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일터에서 이전의 사회생활처럼 지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도울 거라 전망한다고 사할린주 고용노동청이 전했다.

278 предпенсионе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отправили на переобучение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занятости граждане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оходя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тать "студентом" может любой сахалинец, которому до выхода на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осталось менее пяти лет. Участникам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являются как работники организаций, также и ищущие работу граждане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 проекту работодателям предусмотрена компенсация расходов на обучение предпенсионеров из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а для незанятых граждан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ищущих

работу — это не только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но и выплата стипендии. Она начисляется в размере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оплаты труда в месяц, увеличенного на район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Обуч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профессия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на рынке труда регион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чной (заочной) форм обуч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За семь месяце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обучение 278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 них 130 уже стали выпускниками. Среди них бухгалтеры, специалисты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орговл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др.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400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с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профессию, но и повысить свою квалификацию.

Как отмечен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ятерку лидеров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ом выполнен установленный годовой показатель на 103%.

Провод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езусловно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одолжению гражданами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на прежних, так и на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обретенны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навыками, считают в агентстве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7면에 계속)

올해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타라나이에서 진행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 캠프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래 해마다 7-8월에 역사캠프를 지속해 열고 있다.

이번 제5회 역사캠프가 지난 12일(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개막 행사를 가졌다. 홈스크, 네웰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포로나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 한인단체가 있는 곳마다 대표 학생 21명이 이번 캠프에 참가한다. 야영 책임자로는 아니와 한인회 부회장인 배영희 한국어 강사, 주한인회 측 실장으로는 청년부 담당자 이 세르게이가 나섰다.

이날 학생들에게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한국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등 축사를 하고 격려했다.

행사 식전에는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과 <아리랑>무용단 공연이 있었고 최 율리 야 젊은 동포가수의 무대가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다.

학생들은 이날 한인문화센터 앞 사할린 동포 희생자위령비, 이중징용광부피해자비, 그리고 코르사코브 망향의 위령탑에 참배하고 한인문화센터 내 사할린 동포 역사전시관을 돌아보고 주한인노인회 김종길 회장의 간략한 사할린 한인 역사 이야기를 들었다.



야영 학생들의 이번 숙소는 아니와 구역 타라나이 마을에 있는 휴양지이다. 4박5일 캠프 기간 동안에는 여기에 머물면서 김밥 만들기, 서예, 플래시 모브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전해졌다.

지난 13일 오후는 사할린에 파견된 한국어동문학자 김남중 작가가 학생들을 찾아 인생, 자전거, 작가생활 등 내용의 강연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작가란 직업에 흥미를 유발했다.

14일은 사할린 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동북아청소년협의회 김연고 이사장을 비롯해 본회 임직원 4명이 캠프를 방문하여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올해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 캠프는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사할린한국교육원이 후원했다.

(배순신 기자)

<헌시>슬픈 영혼의 귀향

황동준

그리움의 애간장
나라 잃은 한恨 서린 절규
달빛 아래 흔들리는
조선의 봉선화가 그리웠다고

귀국길 기약 없는 징용의 땅
피눈물로 그려보는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아내여
고향의 들녘이 그리웠다고

이역만리 사할린
희색빛 동토의 땅
쓰러진 비석 무너진 봉분 가
봄날은 언제 와 고국의 들꽃 피어나리

태태도 묻지 않은 낯선 땅에
무슨 바람에 실려 왔던고
무슨 사연으로 끌려왔던고

생사기로를 넘나들던
열도(列島) 끝 숨 막히는 막장
악마의 바람 자작나무 숲
귀국길 기약 없는 어둠의 땅에서

눈물로 보낸 지 40년
슬픔을 묻은 지 40년

해 지는 화태도(樺太島) 바다 건너
그리운 고향 땅은
저 하늘 저 달 아래 있건만
80여 년 길고 긴 고난의 세월
끝내 한 줌 재가되어 돌아왔다네

귀국선 아닌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 붉은 주단 깔렸지만
흰모시 두루마기 적삼 걸치지 않으니
귀향(歸鄕)인들 어찌 기쁘리

잔뜩 내려앉은 구름
'투투투 투투투'
가을비 소리에
비로소 고국의 하늘을 올려본다네

한 무리의 제비
망향의 탑을 돌며
산 밑 자락 봉안당(奉安堂)
새 안식처라 위로하는구나!

야! 녀이여,
편히 쉬소서
고국의 땅에서 영면(永眠)하소서

2018. 9. 14.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안치를 마치고

제1회 사할린 미래의 국제 영화제

한국 영화 '꼭두-수호천사'와 '미스터 아이돌' 비경쟁프로그램에 참가

제 1회 사할린 미래의 영화제 <빛의 놀이>가 8월 16일-19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영화관 <옥차브리>와 <콤포몰레츠>에서 개최된다. 8월 16일 16시에는 영화관 <옥차브리>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드카펫 축제가 열린다.

영화제에 참석차 사할린을 방문한 배우이자, 감독, 연출가, 이번 축제의 총괄 책임자인 알렉세이 아그라노비츠는 '세계의 끝-동쪽' 사할린 국제영화제 행사에 참가하고 활동교실에서 영화제작을 배우던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각 연령대의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고안하고,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17세 이하로 행사장에 친구들이 오길 바라며 부모님과 함께 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 행사장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현재 사할린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및 나라의 청소년들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게 더욱 흥미롭다.'고 했다.

이번 미래의 영화제는 러시아의 사마라, 칼리닌그라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와 해외의 캐나다,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한국 등지에서 사할린을 찾아온다. 주요 경연 프로그램은 단편영화, 다큐영화, 만화영화, 뮤직비디오, 비디오 아트로 4가지이다.

총 79개의 영화가 상영되며 30명의 귀빈들이 초대되어 매 영화 상영 전 제작자들과 만남도 진행된다. 꿈

과 목적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사할린주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넘어 타지역, 해외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새로운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창작마당이 되도록 만들었다. 비경쟁프로그램에는 시간표에 따라 전문 예술영화들이 상영된다. 이 영화들은 각 프로그램의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세대 간 대화> 부문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들을 선정해 인터넷 투표를 거쳐 최종 3 편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영화도 같은 방식으로 3편을 선정해 상영한다. <더 가까이> 부문에서는 해외 영화들이 상영되는데 한국의 김태영 감독의 '꼭두-수호천사'(2018년 개봉)가 상영된다.

<하위문화>부문에서는 한국 영화 중 라희찬 감독의 '미스터 아이돌'(2011년 개봉)이 상영되는데 내용은 k-pop과 한국의 유명 아이돌 가수들의 꿈과 고난과 성취를 그려내고 있다.

제 1회 사할린 미래 영화제 <빛의 놀이>는 <세계의 끝- 동쪽> 국제영화제와, 사할린주 정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의 지원으로 <창작하는 사람들> 지역 프로그램 실시와 <문화의 수도> 시 기획 시행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본사기자)

한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6명 사할린 방문

"사할린 동포 교육을 비롯한 여러 지원 올려달라." 요청

(1면의 계속)

같은 날 저녁 교육위 대표단은 사할린 한인 단체장, 한인 동포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할린 한인들의 현황, 역사배경, 언론사와 동포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날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

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보다 더 많은 동포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에 교육위 위원들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들과 한국 교육부 최명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사무관 2명이 일정을 함께 했고 사할린에서는 교육위 대

표단과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 출장소 광기동 소장과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이 동행했다.

14일 국회의원들은 하바롭스크로 떠나 그곳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우리말 방송TV15주년을 축하합니다

15년 전 우리말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열정을 다하신 김춘자 극장님, 그 당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시느라 수없이 고생하신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말 방송국은 한국어를 비롯해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 보급하며, 사할린에 뿌리를 내려 살고있는 사할린 동포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식요리교실, 뉴스, 인물, 문화유산, 그리고

1세대들을 위한 아리랑, 2세대들을 위한 역사의 수레바퀴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할린에 우리말 방송이 있다는 것은 비극적 역사를 가지고도 당당히 살아가는 사할린 동포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입니다.

우리말 방송국의 개국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더욱 더 빛나는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가가린>호텔 사장 권행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т.д.).

Заявл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с 19 августа 2019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9 сентября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Режим работы : 9:00 – 18:00

Обед :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Конкурс эссе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бедителем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 70-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тала Ан Бок Дя. Вместе с работо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а придал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содержание то же самое)

Ан Бок Дя (Ольга Ивановна) родилась в 1957 г. в пос. Побед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 в г. Хабаровске, пенсионерка. Образование высшее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заочное), специальность - методист по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е.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отрудникам редакции за ваш благородный труд и за то, что вы устраиваете такие конкурсы среди своих читателей. Сочинение написано из глубины души, все факты, изложенные там, происходили в моей жизни, моем детстве в родительском доме. Очень рада, что участвую в вашем конкурсе. Я никогда ранее не участвовала в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этому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ысылаю свою работу. Желаю вам и вашему коллективу успехов и много-много новых читателей и подписчиков.»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усский вариант эссе.



Я хочу, чтобы песни звучали

Ан Бок Дя

У каждого народа есть свои традиции, сложившиеся за тысячелетия, св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свои песни... Известно, что песни рождаются от любви, от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от незабываемого события... События случаются разные – радостные, счастливые, торжественные.

Но бывают события и грустные, печальные, даже драматические, и они оставляют в душах людей глубокие раны, невыплаканные слезы, эмоции грусти, даже безысходности. Эти эмоции возвращают нас в далекое, ушедшее время, пробуждают в нас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пусть и трудном, но детстве, вызывают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туда, в то время хоть на миг, где жизнь казалась очень длинной, долгой, когда представлялось, что еще очень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произойдет в твоей жизни, а счастье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впереди...

Так сложилось, что у меня две Родины – Россия и Корея. Когда я бываю в Южной Корее, я вспоминаю, что я кореянка, и могу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взглянуть и поня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все богат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древних традиций этой удивительной страны. А живя в России, я вижу богатство природы и ресурсов нашей страны, смешение культур, гармоничное взаимопроникновение традиций разных народностей, населяющих ее, их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Я родилась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в нелегком для моих родителей 1957 году, в маленьком поселке Победин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то самое место, где была одержана окончательная побед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над японцами в конц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Меня назвали Бок Дя. Что означает это имя? «Бок» по-корейски означает счастье, благо. Родители в то время испытывали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очень тяжелая доля выпала им. Но им так хотелось быть счастливыми... Оказавшись освобожденными от японского ига, мои родители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свою Родину – Южную Корею. Туда, где они родились, где прошло их детство, где жили их родители, сестры, братья. Такова была в то врем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ынужденные остаться в тогдешнем СССР без знания языка, без близких, без работы, без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мои родители, как 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оказавшиеся в то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й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и, продолжали жить. Создавали семьи, рожали и растили детей, трудились, не покладая рук, перенося стойко лишения и невзгоды, свалившиеся на их плечи. Что же помогало им выдержать все испытания? Как они перенесли все тяготы? С ними были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родных краях, о детстве, проведенном в этих краях, о родственниках. Было неосуществимое в то время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был родной язык, были друзья по несчастью и были... родные песни. Эти песни спасали и поддерживали их душевно, связывали их с далекой родиной.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чали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 когда-то в родном доме с родителями, готовили в эти дни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привычные для них. И, конечно же, пели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Многие песни я до сих пор помню: всем известные Ариран, Торади, Капторива Капсуни, Туманган, Ири галька дери галька (아리랑, 도라지, 감도리와 감순이, 두만강,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Я с детства помню, как собирались мои родители с соседями в дни праздников за столом, накры-

том в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ях, где обязательно были такие блюда как белый отваренный рис, суп с морской капустой, кимчи (корейская острая капуста), мук (блюдо из гречневой муки), дубу из сои. Были и салаты из папоротника, пророщенной сои, шпината, разные мясные и рыбные блюда. Мы, дети, очень любили эти праздники, потому что можно было наесться вкусной, разнообразной еды и отведать фрукты и сладости, чего не было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осле угощений, нескольких стопок корейской бражки – макколли или русской водки, после долгих разговоров о собранном урожае, воспоминаний о родных местах, родственниках, живущих вдали, мои родители с гостями – тож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начинали петь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До сих пор помню, так хорошо помню, что мне кажется, я вижу сохранившуюся в моей душе с детства картину, на которой родители, наши соседи сидят на деревянном полу за низкими столиками, поют песни и слегка отбивают такт, постукивая огрубевшими, натруженными ладонями и палочками по столу. Не было «живой» музыки, но они слышали музыку, исходящую из глубины души,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из тоскующего сердца. А я, маленькая девочка, присутствуя при этом действе, чувствовала их ностальгию, их грусть, их тоску по родной стороне, по женам, которых оставили совсем молодыми, по родителям, состарившимся без них. В то время я не могла представить их родные края, я никогда не была там, не видела их поля, деревни, море, горы, о которых они пели: я родилась совсем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Но все мое детство было пронизано этими нотками, этими печальными песнями, и я полubiла эти песни, хотя в то время не все слова понимала. Я видела, как они задушевно, подчиняясь мелодии и ритму, пели эти наполненные жизнью, невысказанной любовью и лиризмом песни, я чувствовала эмоции поющих при мне простых корейцев, понимала их всем сердцем. Много было песен в длинные зимние, холодные вечера, часто даже без электричества, со слабым огоньком от свечи. Этот легкий огонек, чуть дрожа, освещал обветренные, загорелые, одухотворенные, поющие лица, а на белых стенах, крашенных известью, дрожали тени. Пели до глубокой ночи, потому что следующий праздник был не скоро. Потом расставались, как близк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как братья.

Особенно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о песне «돌아와요 부산항에», ставшей популярной среди всех корейцев в 70-е годы, название которой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означает «Возвращайся в порт Пусан». Именно из этого порта мой молодой отец, расставшись с юной женой, родителями, сестрами, младшим братом отправился по вербовке японцев из тогда еще единой Кореи на неизвестный ему, в то время далекий, но позднее ставший близким Сахалин. Здесь он впоследствии встретился с моей будущей матерью.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он обрел вторую Родину, и здесь родились его пять дочерей.

Долгих 50 лет у семьи не было связи с родиной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Родители отца считали старшего сына погибшим и до 80-х годов справляли по нему поминки. Много лет ждала 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верная молодая жена. А когда не осталось надежды на возвращение старшего сына, его отец сказал своей невестке: «Оставь мой дом, выходи замуж, устраивай свою жизнь».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14 августа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амяти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14 августа в Сеул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провело церемонию по случаю второго по счёту Дня памяти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4 августа 1991 года ныне покойная бабушка Ким Хак Сун впервые открыто заявила о том, что в молодости она была жертвой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Тем самым было начато движение по решению этой проблемы. С декабря 2012 года гражда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тмечают в эту дату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событие получило стату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 названием День памяти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На этот раз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жертвы преступления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ражданских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

ЦТАК: СК провела испытание нового оружия

11 августа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общило, что 10 августа в КНДР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испытание нового оружия, которым лично руковод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учёные и военные рапортовали о завершении разработки нового оружия, направления создания которого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артией. Ким Чон Ын отдал приказ об испытаниях сраз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азработки и создания опытного образца. Агентство отметил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выразил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испытаниями и поблагодарил ученых за работу. Между тем, Север не раскрывает характеристик оружия и других подробностей. Испытанное оружие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ех образцов ракет, которые запускались ранее. Оно схоже с оперативно-тактическим ракетным комплексом США ATACMS. Скорость запущенных Севером снарядов превышает 6,1 маха, а дальность свыше 400 км.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удалось создать новую ракетную систему класса земля-земл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с мая этого года Север представил три новых вида оружия. Помимо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это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KN-23» класса «Искандер» и крупнокалиберная многоцелевая ракетная систем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увеличение их скорости и высоты полё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и аналогами. Кроме того, во всех трёх системах применялось твёрдое топливо, что сокращает время запуска. Повышена мобильность и скрыт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использованию передвижных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сообщили о возможн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испытаний в КНДР, учитывая начало совместных командно-штаб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учений.

С 1 по 10 августа экспорт РК сократился на 22,1%

Объё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за первую декаду августа сократился на 22,1%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1,5 млрд долларов. Отмеча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влияния спада поставок товаров в Китай и ухудш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связанных с полупроводниками. В частности, экспорт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ократился на 34,2%,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на 26,3%, автомобилей на 6%. Напротив показатель беспроводных средств связи вырос на 41,6%, а бытовой электротехники на 25,6%. Постав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в Китай снизились на 28,3%, в Японию на 32,3%, в США на 19,5%, в страны ЕС на 18,7%. Месячный объём экспорта сокращается восемь месяцев подряд с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ежду тем, импорт уменьшился на 13,2% до 14,2 млрд долларов.

Японская косме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DHC оказалась в центре скандала

Японская косме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DHC оказалась в центре скандала. В минувший понедельник на YouTube канале компании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идеоролик с выступлением депутата парламента Японии Аояма Сигэхару в адрес РК, содержание которого искажает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ы. Он, в частност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о всех спорах с РК Япония никогда не была инициатором конфликта.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депутат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амовольно присвоил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Помимо этого, Сигэхару напомнил о споре вокруг проблем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об инциденте с наведен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адара управления оружиемными системами на японский самолёт. Между тем, крупнейш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ритейлеры космет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Lohb's, Lalavla и другие прекратили продажу косме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DHC. Сеть профи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Oliveyoung также заменила данную продукцию на своих прилавках.

(RKI)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зличия и сходства

Ким Герман, д.и.н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вшие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делились на три ассиметричные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и значимости группы: первая - коре сарам, вторая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третья -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невозвращенцы. Число граждан КНДР, пожелавших остатьс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мизерно,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речь идет о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ах людей.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они выпадают из по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но не только из-за показателей их численност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1930-1990 годы появилось немало книг, диссертаций и статей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убликаций оказалось немного.

С началом горбачевской «перестройки, гласности и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многие прежние запреты сняли, открыли доступ к архивным документам и позволили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оставшихся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Первыми публикациями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стали статьи, брошюра и итоговая книга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1993). Благодаря трудам А.Т. Кузина, Пак Сын Ы, Ю.И. Дин 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япон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олучили освещение уникаль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судьба и весь комплекс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пришлось столкнуться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История коре сарам (именуемых ныне корейцами)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полутора веков, а советское прошлое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протяженности в два раза короче. Однак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 и коре сарам, прошли те же ступен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й общности –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Первоначально между ними было больше различий, чем сходств. Разумеется, более чем через четыре десятилетия (1945-1990) они во многом стерлись и к моменту развала советской державы сравнялись по основным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м параметрам.

Надо признать, что в научном, масс-медийном дискурсе и обыденном сознании, как и прежде, остается деление на «материковских» и островных –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 этом нет четкого понимания почему и как возникли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ними и в чем проявляются сходства в их настоящей жизни.

Вопросов чрезвычайно много, и они оставались безответными, вот почему возникла идея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этих двух суб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корейцев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ведение

Одна из причин, побудившая написать статью,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академ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в СМИ и в обиходной речи бытует множество слов – этнонимов (названий и самоназваний)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вших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что порождает путаницу и ошибочную подмену одного этнонима другим.

Зачастую всю совокупность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вших в СССР, называют совет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Однако на самом дел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 собирательный этноним, включающий в себя всех тех, кто имел гражданство СССР, включая сахалинцев.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в раз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ериоды названий отдельных групп корейцев, отличавшихся по происхождению,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му статусу, языковому признаку,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ю довольно внушительен: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ейц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атериковые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е сарам, корейцы диаспора,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вказские корейцы, православные корейц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корейцы,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и т.д.

В статье предпринимается одна из первых попыток развернутого компаративного анализа исторических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ых процессов среди материковских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утем определения различий и сходств в этих двух диаспорных группах.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отличий между ним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раз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эпохах и политико-правовых условиях вхождения в предел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ни, по сути, обусловили асимметрию в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временных измерениях материковских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правило, анализ сложного объекта предполагает его деление на отдельные части, поэтому сравнитель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этих двух групп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о по аспектам: историк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прав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этноязыковой,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й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Начнем с первого из них.

Периодизация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асинхронность в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ье и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Обезземел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начали переходить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1860-х годов. Не углубляясь в уже известные детали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отметим, что оно продолжалось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1920-х годов, когда укрепившаяся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сумела уплотнить свои границы и положить конец передвижению людей в свои предел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еселялись на остров добровольно, затем их ста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ывать на шахты и заводы. С начала 1930-х годов до 1945 года японские колониальные власти перевозили десятки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на Карафуто – южную часть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Оставшиеся в Корее без кормильца семьи стали переезжать на Сахалин.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в 1946-1949 гг. на Сахалин были мобилизованы около 26 тыс.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 в основном для работы в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Из них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14, 5 тыс. человек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оставшаяся часть вошла в насе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1946–1949 гг. с материка на остров прибыло 450.000 переселенцев. Среди них были корейцы из Казахстана и Средней Азии, численностью около 2. 000 человек. На этом численно значимые 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прекратились.

География расселения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на материковую част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сселились первоначально в Приморье,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порядка 165 тыс. км². Затем ареал расселения добровольно 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лся д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риамурья, Забайкалья и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площадью свыше 6 млн. км². Депортация 1937 года рассеяла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Средней Азии совокупной площадью более 3 млн. км².

Отправка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свыше 2,5 тысяч корейцев (с членами семей) из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в специальные командиров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Южный Сахалин, хоть и временно, но расширила географию проживания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шедшую за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раниц СССР. Ускоренная урбанизация, специфическая отходническая полулегальна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известная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обонди, обязательная военная служба в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обуч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и институтах – все это расширило ареал присутств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одной шестой части планеты Земля.

Вплоть до 1970-х годов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Сахалина не могло покидать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лощадью 36 тыс. км² (общая площадь Сахалина – 76 тыс. км²). Строго ограниченный ареал проживания, островной образ жизни и изоляция от основной массы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казались на сохранении специфик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го облика и правового статус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Численность

Число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росло в течение 150-летней истории, о че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переписей населения: 1895 г. – 18.400 чел.; 1905 г. – 28.500; 1923 г. – 103.482; 1929 – 150.795; 1939 – 182.339; 1959 г. – 313.735; 1970 г. – 357.507; 1979 г. – 388.926, 1989 г. – 438.650.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 1893 по 1937 год в северной (российской, а затем и советск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образовалась северо-сахалинская группа корейцев, депортированная как и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в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Начиная с 1959 года Всесоюзные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включали в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и тех, кто проживал на Сахалине, но получил гражданство СССР.

Что касается числ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о следует различать тех, кто проживал и прожива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острове, и тех, кто имеет островные корни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 есть речь здесь идет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на материковую часть стран СНГ, а также о представителях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репатрировавших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тигла пика в 1951 году, составив почти 43 тыс. человек. Позже она стала постоянно уменьшаться. Не вдаваясь в детали, отметим, что она с момента присоединения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к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сократилась больше, чем наполовину (до 26,4 тыс. чел. в 2019 году).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Семь человек победили в конкурсе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9»

12 августа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ручили награды обладателям «гордых» званий.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50 человек – спасатели, защитники природы, волонтеры, многодетные родители, активные пенсионеры, писатели, спортсмены, врачи, педагоги. Кандидатуры земляков, которыми стоит гордиться, предложили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 – гордиться достижениями своей великой Родины, ее историей, культурой. Но самое большое богат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люди. Хочется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и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добровольческую работу, за крепкие и счастливые семьи, – обратился к виновникам торжест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в шести номинациях определялись на двух этапах голосования – зрительском и жюри. С 1 по 22 июля островитяне отдали более 4,5 тысяч голосов в поддержку номинантов. 26 июля свой выбор сдел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журналисты. Возглавил жюри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Будкин.

В большинстве номинаций народно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нения совпали. Но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сюрпризов – в номинации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вышло сразу два победителя.

Леонид Ким – директор СШОР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арате. Выдающийся тренер воспитал 12 мастеров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карате, более сотни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беду с ним разделил островитянин, имя которого известно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Сахалина. Владимир Санги – автор десятков произведений, создатель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вождь племени – уже стал классиком литературы.

Обладателем «гордого» звания в номинации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стал пожарный Евгений Чайченко. В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е МЧС России он служит с 2010 года. За спасение людей южносахалинца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ью «За отвагу на пожаре».

Победа в номинации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досталась педагог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еннадии Акмалову – большому знатоку истории родн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 в номинации «Юный гражданин» лучшим стал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активный юнармеец Ярослав Новиков.

– У нас много активной молодежи, достойной такого звания. Спасибо моим друзьям, товарищам, кадетам, юнармейцам за поддержку! Для меня гражданин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патриот.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ой занимаюсь, сколько себя помню. Начинать еще в пятом классе, – поделился Ярослав.

«Выдающимися родителями» жюри и островитяне назвали Анну и Виктора Седых. Вместе они воспитывают семерых детей – одного кровного и шестерых приемных. Дружная и творческая семья веде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постоянно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ах и фестивалях. В 2016 году Седых завоевали награду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ссамблее замещающих семей.

В номинации «Доброволец» победила Светлана Инявкина – создательница волонтерской команды «Доктор Клоун». Добровольцы устраивают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ребят, оказавшихся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навещают детей в больницах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ах.

Всем победителям конкурса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ризы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Sakh.com.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лососевая путина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ланируется выловить более 80 тысяч тонн лососевых – горбуши, кеты, нерки, кижуча.

К большой рыбалке подключилась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ибрежных районов на островах. В этом году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мышленный лов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получили 196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 Рыбная отрасль является ведущей в экономике региона наряду с добычей нефти, газа, угля,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Лососевая путина-2019 началась в срок и идет по плану.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рыболовные заводы, есть план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островных портов. Мы намерены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чтобы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островах начал новый виток развития.

Област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уделяет внимание не только промышленному вылову лососевых, но и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е. С инициативой разрешить свободный вылов горбуш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январе выступ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Идею поддерж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Илья Шестаков. В резуль-

тате в июне в правила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был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еддверии нынешней путины разрешили ловить горбушу на удочку. При этом не требуется получать специальных лицензий и путевок.

В регионе определили 44 места, где рыбаки-любители могут законно поймать до трех экземпляров, или до 5 килограммов рыбы в сутки. Свободный выл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на давно любимых рыбаками участках. Это, к примеру, пролив Красноармейский и морское побережье неподалеку от устья реки Мере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а также район поселка Музьма в Охин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Дмитрий Поробок на берегу с раннего утра – на рыбалке он проводит свой отпуск.

– Я с детства с родителями постоянно на рыбалку ездил, вот и сам пристрастился к этому делу, – поделился южносахалинец. – Иногда з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только одну рыбку поймаешь, иногда клев идет. Хорошо, что сейчас можно выходить к воде с удочкой и не бояться, что тебя оштрафуют.

Любительская рыбалка не может серьезно повлиять на объемы добычи в промышленных масштабах.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тровны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добыли около 6 тысяч тонн горбуши и около 2 тысяч тонн кеты. Официально путина стартовала 16 июня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продлится она до 30 ноября.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бил рекорд по выловам горбуши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Островные рыбаки добыли более 85 тысяч тонн этого вида рыбы. Улов кеты – около 40 тысяч тонн – превзошел предыдущий результат в полтора раза. Свою роль здесь сыграли рыбол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ых на островах более 5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улич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ыступления уличных музыкантов и экстремалов, мастеров граффити и любителей современных танцев с раннего утра развернулись более чем на 50 площадках между дом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Чехов-цент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дея фестиваля «Южный стрит фест» родилась в твор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Арт Сахалин». В конце июня она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встрече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молодежью.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поддержал идею фестиваля, отметив, что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творческих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 Сегодня мы еще раз убедились в том, какая активная и креативная молодежь живет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была ваша идея собрать на уличный фестивал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мых разных твор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певцов, танцоров, спортсменов, художников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Показать, на что вы способны и вовлечь люд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в калейдоскоп уличных увлечений. Получило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доров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оказало поддержку этому фестивалю и будет в дальнейшем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твор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Уверен, мы сможем реализовать еще мно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нтересных проектов!

За коротки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организаторы смогли собр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уличного движения.

– Улица многолика и многогранна, поэтому мы не ставили ника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Участником фестиваля мог стать каждый. Главная мысль – на улицах города должно быть интересно. Поэтому здесь те, кто за движение, за развитие, –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Иван Бутаков.

На уличной «мегатусовке», как ее называли креативные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реди них – не только молодые люди. Пенсионерка Нина Лурцева пришла на фестиваль с подружкой из Москвы.

– Нам все нравится. Здесь очень здорово. Приятно смотреть на талантливую молодежь, – по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женщины.

Всего на фестивале представили несколько больших зон. Первая – площадь перед Домом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открылась в 11.00 и работала до позднего вечера. Здесь можно было прогуляться с ростовым медведем или динозавром, изготовить мыльные пузыри по оригинальному рецепту и узнать разные способы их выдувания, посмотреть на выступление ходулистов и танцевальный баттл,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научных экспериментах, а также сделать фотографию с зомби. Прохожие пробовали себя в лучном спорте и играли в футбол в больших надувных шарах.

Зона уличного спорта открылась н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проспекте напротив Чехов-центра. Впервые на одну из центральных улиц города был вывезен фанбокс и другие спортивные сооружения для катания на роликовых коньках и скейтах. Вниманию сахалинцев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ьшой джем-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скейтеров, самокатеров, любителей BMX. Особую атмосферу выступлениям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дало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которое бесплатно организов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ди-джеи.

После обеда начала работу и зона стрит-фуда. Уличные повара готовили для прохожих бургеры из мраморного мяса, лапшу «Вок», хот-доги, кукурузу, горячие напитки. Главной фишкой этой зоны стало приготовление самой длинной в городе шаурмы. Для этого был специально построен 10-метровый стол. На приготовление аппетитного фастфуда ушло около получаса. Шаурма вышла классической и, как было заявлено, завернутой в армянский лаваш. Начинка состояла из курицы, помидоров, огурцов, листьев салата, кетчупа, майонеза и горчичного соуса. Отведать угощение смог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Возле Чехов-центра развернулась зона ярмарки и творчества. Здесь же сво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ли мастера стрит-арта. С ними глава области обсудил планы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Есть идея: вписать арт-искусство в программу реконструкции городских дворов. При ремонте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украси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исунками на фасадах.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участвовали жители, чтобы у рисунков была тематика, которая прославляла город, –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мыслями с художникам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астера стрит-арта предложили главе области для создания концепции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города собраться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ой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ластных и городских властей, экспертов и урбанистов.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получило поддержку.

Здесь же была одобрена еще одна идея организаторов, которая касалась развития фестив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Южный стрит фест» планируют организовать и зимой.

Большой уличный праздник продлился до позднего вечера. Его завершил концерт любителей рэп-музыки и местной рок-группы Room 420.

– Мы хотим, чтобы площад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жили. Пространство должно наполняться людьми, двигаться. Хотим сделать что-то такое, чтобы люди собирались, гуляли и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ли время не только в парке Гагарина. Пусть та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будут и в городе, – озвучил идею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раздника Дмитрий Платонов.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добавил, что концепцию зимнего фестиваля он готов представ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Роботы пригласят сахалинцев на бесплат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Звонки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мощи роботизированной системы начнутся с 14 августа.

Абонентам будет предлагаться определенный день и время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бесплат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Если человека не устраивает обозначенная дата,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1-300» и выбрать более подходящую. О нововведении рассказали 13 августа на брифинг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способствуют решению актуальных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дач, в том числе помогают заботиться о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речь идет о голосовых роботах. Человек получает звонок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конкретной даты, времени, с указанием медучреждения, в котором обслуживается. Накануне медицинского осмотра абоненту приходит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которое напоминает о визите в поликлинику.

– Мы призываем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ройти такие медосмотры. Лучшее лечение – это обнаружение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К примеру, в среднем у 13 процентов из обследованных есть подозрения на наличие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патологий. А в целом, 40 процентов из прошедших первый этап медосмотра направляют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терапевт сахалинского минздрава Мила Тен, нововведение стан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 этом участковые терапевты продолжают встречаться с жителями, чтобы убедить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ботиться о своем здоровье и помогать в решении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из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помним, что в ию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имо обычных приемов, ввели единый ден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ройти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можно по средам с 17 до 20 часов и по субботам – с 9 до 15. В регионе активизировалась также выездная работа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Передвижны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приезжают в микрорайоны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а также в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К примеру, в августе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комплекс обследований можно пройт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есплат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смогут пройти 3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сентября 2019 г. –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сентября

#ГУБЕРНАТОР2019

ЧЕРЕЗ ПЯТЬ ЛЕТ ВСЕ ДО ЕДИНОГО БУДУТ ПОНИМА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РЕГИОН, ГДЕ МОЖНО И НУЖНО ЖИТЬ!



5년 후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사할린주는 살 만하고 또 살아야 하는 지역임'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КОРНИЕНКО

КОРНИЕНКО2019.РФ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44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21 июня 2012 года «О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과 쿠릴열도 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할린주의 자연적 인구 감소가 관측되었다. 사할린주 주민등록소에 출생아는 43 쌍둥이를 포함해 2681명이고, 사망자 수는 3079명이었다. 자연적 감소는 398명으로 2018년 유사시기에는 204명이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높은 것으로 기록된 지역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이다. 주내에서 2017년 유사시기에 기록된 혼인신고는 1491 건, 이혼은 1338건인 것에 반해 올해 혼인신고는 1308건, 이혼은 1214건으로 기록되었다. 사할린주 러시아 내 무부 이민관리국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사할린과 쿠릴열도 지역에 9579명이 체류했으며 이중 52.2%가 상시 거주민이다. 사할린주를 떠난 이주민은 9188명으로 이중 78.2%가 이전 거주지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 지역 내에서는 3431명이 주거지를 변경했고 이민자 수는 증가하여 391명이라고 사할린주 통계청 홍보실이 전했다.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озросла в два раза

В январе — июне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блюдалась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2681 родившийся, в том числе 43 двойни, и 3079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98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 204 человека.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308 браков и 1214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1491 брака и 1338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го.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 — июнь 201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9579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52,2%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9188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8,2%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3431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391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러시아에서 중국 과일 수입 금지

러시아 연방 농산물감독청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사과, 배, 자두, 복숭아를 비롯한 몇 종의 과일들 반입에 대한 임시 통제를 8월 10일부터 시행했다. 중국에서 들여온 유사 검역식품 반입이 수차례 반복된 데서 식물 위생관리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임시 통제는 유라시아 경제동맹 상품코드 0808, 0809의 핵과류(살구, 체리, 복숭아, 천도복숭아, 자두, 흑자두)와 인과류(사과, 배, 모과)에 해당된다. 세관 관리국은 이런 통제조치와 관련하여 감독을 강화했다. 8월 10일 이후에 상응하는 과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 금지식품에 대한 판결을 적용한다. 이러한 조치는 위탁으로만 아니라 개인 수하물이나 소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할린 세관국 홍보실이 전했다.

Россиянам запретили ввозить фрукты из Китая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 ввел времен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ввоз свежих яблок, груш, слив, персиков и еще некоторых фруктов из Китая. Запрет действует с 10 августа.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фитосанитарной службой из-за многократных случаев ввоза аналогичной карантинной продукции из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ремен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косточковые и семечковые культуры товарных групп 0808 и 0809 ТН ВЭД ЕАЭС.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свежие яблоки, груши, айва, абрикосы, вишня, черешня, персики (нектарины), сливы и терн.

Таможенные органы усилили контроль в связи с действием ограничения. В случае отгруз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артий продукции позднее 10 августа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ся решение о запрете ввоза данных товаро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распоряж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товарные партии, но и на ввоз аналогич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ручной клади и багаже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кой таможни.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인천 남동구노인복지관 대표단, 사할린 방문



지난 6일-10일간 사할린을 인천시 남동구노인복지관 대표단이 다녀갔다. 2017년부터 사할린한인단체와 교류를 계속 해온 인천 복지관의 대표단은 7일 사할린한인문화센터를 방문해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한인노인협회(회장 김종길) 등을 만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할린 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인천시 남동구노인복지관의 사할린 동포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교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2·3세대 동포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한인협회 협력 아래 인천대표단은 홈스크,네 웰스크, 아니와를 방문해 그곳 정부 관계자와 지방 한인회장들과 만남을 갖고 사할린 한인 역사탐방(포자르스크에 27일 한인피살자 추념비 등)도 했다고 전해졌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유즈니 스트리트 페스티벌>에 한국의 "LAC Graffiti Studio"의 작가들을 초청



8월 10일 개최되는 <유즈니 스트리트 페스티벌 (유즈니 거리축제)>의 일환으로 초청된 한국의 락 그래피티 스튜디오(LAC Graffiti Studio) 작가들(: 거리 벽면에 낙서처럼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첫 작품을 달네에 마을에서 완성했다. 지난 8월 8일 달네에 아파트 벽면에 다채로운 색상의 연어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락 그래피티 스튜디오(LAC Graffiti Studio)는 서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는 한국 내 최고의 그래피티

작가들이다. 거대한 다채색의 연어 그림을 스케치하여 주최측과 협의하고 수정한 후 작업에 들어가 완성하게 되었다. 이번 작품은 LEODAV(레오다브) 작가를 주축으로 DASOL WORKS(다솔 워크스)작가의 도움을 받아 작업하게 되었다. 작가들은 이 작품에 대하여 "사할린의 연어를 매개체로 연어가 가진 귀향 본능과 생명력을 표현하려 했고, 연어 몸통의 군복의 패턴과도 같은 카모플라주 패턴은 카모플라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은

페등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자신만의 개성을 더욱 드러내고 여러 생각들이 어우러지는 이미지를 나타내 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달네에 마을 주민들이 이 작품에 대하여 아주 높 이 평가하며 한 주민은 똑 같이 생긴 집들만 있어서 사람들의 개성이 사라진 느낌이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건물에 미적 개성을 부여하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유명 사진작가 세르게이 크라스노우후은 이러한 밝은 그림들로 달네에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세상은 더 밝아져야 하고 달네에의 집들은 예술가들을 위해 준비된 원석같은 느낌을 준다. 시간이 지나면 이 집들의 벽 위에 생생한 그림들이 가득할 거라 기대한다. 나의 집도 지금은 페인트칠뿐이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본사 기자)

광복 74주년 기념 한려수교 29주년 기념 사할린동포와 함께 제13회 '대구의 밤'

대구의 청년들이 지난 14년 동안 사할린을 방문해서 동포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겹고 신명나는 울림이 있는 대구의 밤 행사를 준비합니다.

꼭 오셔서 대구사람들과 정을 나눠주세요.

일시: 2019년 8월 24일 오후 5시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사할린주여성회
주관: 매일신문CEO스피치아카데미
후원: 대구광역시, 금부모터스, 여성메디파크병원, 새고려신문사, 사할린인문기술대학.

СОБОЛЕЗНОВАНИЕ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безвременно ушедшей Ли Ирины Судиновны, дочери Почетн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О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и Су Дина. Мы потрясены этим печальным известием. Трудно его принять. Вместе с вами разделяем боль утраты. Светлая память.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 회장의 따님이 이리나 님이 별세하였음을 알리며 비애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한인협회
14 августа 2019 года ушла из жизни Ли Ирина Судиновна, дочь Почетн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Ли Су Дина.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ителя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장기간 동안 새고려신문(레닌의 길로)사에서 근무하셨던 이복순 기자님의 딸이 이리나 수지노브나 님이 2019년 8월 14일 향년 49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전 직원 및 현 직원 일동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